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미 증시, 에브리밍 랠리 지속하며 상승 마감

Key Takeaways

- 미 증시, 골디락스 기대감에 '에브리밍 랠리' 이어가
- 3분기 실질GDP성장률 이전 5.2%에서 4.9%로 소폭 하향 조정
- 미국 개인투자자 증시 낙관론, 2021년 4월 이후 최고 기록

변화요인

- 미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되며 **에브리밍 랠리**를 이어가. 마이크로의 호실적과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반도체 섹터가 2% 넘게 상승하며 상승을 견인하였고, S&P 500 구성종목의 91%와 11개 주요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등 광범위한 랠리 흐름 나타나. 미 국제 수익률은 소폭 상승하였고, 달러인덱스는 5개월래 최저 수준까지 하락. 한편, 개인투자자의 증시에 대한 낙관론은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 (다우 +0.9%, 나스닥 +1.3%, S&P500 +1.0%, 러셀2000 +1.8%)
- 3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이전 5.2%에서 4.9%로 하향. 개인소비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지만, 투자와 순수출이 상쇄하며 견조한 흐름 보여. 4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2.7%로 현재 추정기간 중 가장 높아. **1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 연속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캔자스시티·필라델피아 연은 12월 제조업지수** 역시 전월대비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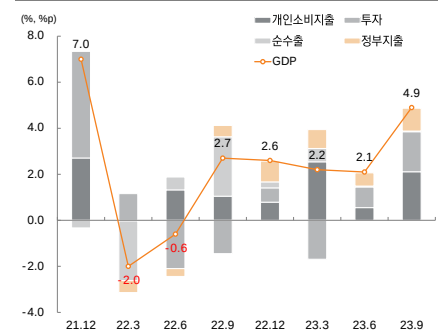
특징종목

- **마이크론(MU, +8.6%)**은 양호한 분기 실적과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을 기록. 마이크로의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 +2.8%)**와 **VanEck 반도체 ETF(SMH, +2.5%)** 등 상승. **Invesco 태양광 ETF(TAN, +4.8%)**이상 상승하였는데, 구성종목 중 **맥센태양광(MAXN, +20.7%)**을 비롯해 **썬런(RUN, +7.0%)**, **썬노바(NOVA, +6.1%)** 및 **인페이즈(ENPH, +4.6%)** 등이 강세를 보임. 장 시작 전, 시장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카니발(CCL, +6.2%)**에 힘입어 **로얄캐리비언(RCL, +5.2%)**, **노르웨이저인 크루즈(NCLH, +5.4%)** 등 크루즈株 강세. 반면, **블랙베리(BB, -12.7%)**는 예상보다 낮은 4분기 가이던스 발표에 약세를 보였고, **페이척(PAYX, -7.0%)**은 시장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 발표에 약세. **파라마운트(PARA, -2.8%)**와 **워너브라더스(WBD, -1.5%)** 간 합병 이슈가 전해지며 동반 약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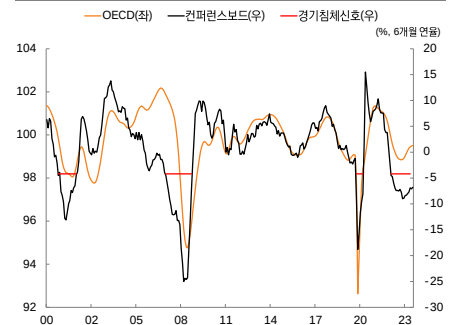
- 전 세계 상품 운송 비용을 측정하는 **BDI 지수**는 7일 연속 하락하며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인 2,087p를 기록. 반면,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86달러를 상회하며 2007년 11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다 80%나 상승. 이는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
-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5일로 끝난 주 동안 예상보다 많은 재고가 감소한 영향으로 5% 넘게 상승.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홍해의 지정학적 불안이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
- 미 국제 10년물 수익률은 큰 변화 없는 가운데 지난 7월 이후 최저수준에 근접. 달러인덱스는 미국 경제와 기업 이익이 둔화한 영향으로 5개월래 최저 수준인 101.8을 기록. 한편, 멕시코 페소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가 커지며 3개월 최고치인 달러당 17.1 페소를 상회.

그림 1. 미국 실질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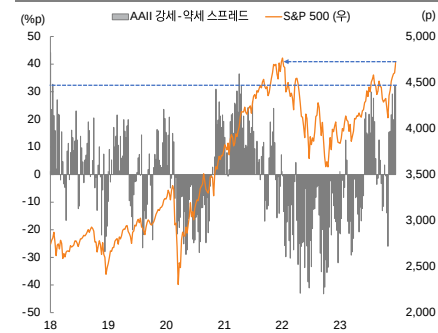
자료: BEA,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미국 경기선행지수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미국 개인투자자 투자심리



자료: AAII,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1	대형 가치주 ETF (IVE)	+0.9
클린테크 ETF (CTEC)	+3.3	중형 가치주 ETF (IWS)	+1.2
소매업체 ETF (XLY)	+1.5	소형 가치주 ETF (IWN)	+1.6
온라인소매 ETF (EBIZ)	+2.6	대형 성장주 ETF (VUG)	+1.1
미국 인프라 ETF (PAVE)	+1.2	중형 성장주 ETF (IWP)	+1.5
핀테크 ETF (FINX)	+2.0	소형 성장주 ETF (IWO)	+1.9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2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3
클라우드 ETF (CLOU)	+1.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4
사이버보안 ETF (BUG)	+0.6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2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1	미국 국채 ETF (IEF)	-0.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3	하이일드 ETF (JNK)	+0.5
바이오섹터 ETF (IBB)	+1.6	신흥국 채권 ETF (EMBD)	-0.2
로봇&AI ETF (BOTZ)	+2.1	물가연동채 ETF (TIP)	-0.2
반도체 ETF (SMH)	+2.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경기소비재	1,433.50	+1.4	+1.7	+8.1
헬스케어	1,567.63	+1.2	-0.3	+3.9
커뮤니케이션	246.58	+1.1	+4.1	+2.9
IT	3,386.80	+1.1	+0.7	+3.6
산업재	953.77	+1.1	+0.0	+6.7
소재	537.07	+1.0	+0.3	+5.8
부동산	249.30	+0.9	-1.3	+10.4
금융	619.50	+0.7	-0.5	+6.3
필수소비재	749.01	+0.7	-0.1	+1.9
에너지	647.26	+0.4	+0.9	+0.7
유틸리티	317.22	+0.1	-3.3	+0.9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3.89	-0.3	+2.9	Dollar Index	101.797	-0.6	-0.2
브렌트유	79.39	-0.3	+3.7	EUR/USD	1.1005	+0.6	+0.1
천연가스	2.57	+5.4	+7.9	USD/JPY	142.24	-0.9	+0.3
금	2,051.30	+0.4	+0.6	GBP/USD	1.2686	+0.4	-0.6
은	24.59	+0.2	+1.2	USD/CHF	0.8563	-0.7	-1.3
알루미늄	2,244.00	+0.1	+1.5	AUD/USD	0.6801	+1.1	+1.5
전기동	8,595.50	+0.2	+0.5	USD/CAD	1.3284	-0.6	-0.9
아연	2,547.00	-1.0	+2.2	USD/RUB	91.9530	+1.1	+2.8
옥수수	472.50	+0.6	-1.4	USD/BRL	4.8812	-0.7	-0.6
밀	612.50	+0.5	-0.5	USD/CNH	7.1421	-0.1	+0.3
대두	1,301.75	-1.2	-2.4	USD/KRW	1,305.10	+0.5	+0.8
커피	193.60	+1.6	+1.6	USD/KRW NDF1M	1,294.10	-0.6	+0.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888	+4.1	-3.3	스페인	2.900	-1.2	-18.1
한국	3.292	+1.5	-0.9	포르투갈	2.561	-1.5	-18.2
일본	0.583	+2.7	-9.1	그리스	3.058	-1.5	-22.9
독일	1.964	-0.7	-15.5	이탈리아	3.585	-0.8	-20.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